

제 240호 · 2014년 1월 22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MOL 항만터미널 전략적 제휴 체결
2. 닝보-저우산항, 철도-수로 복합운송 확대 전략 성공으로 항만물동량 증가
3. 이집트, 수에즈 운하 물류회랑 개발
4. Maersk, 핵심사업 집중 위해 2007년 이후 26개 사업부 매각

물류시장동향

1. Maersk · APL · OOCL 3사, 극동-인도반도항로 공동운항
2. 타우랑가 항만, 복합운송 물류 허브 개발 결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MOL 항만터미널 전략적 제휴 체결

- MOL(Mitsui OSK Lines)은 브룩필드(Brookfield) 자산관리회사와 MOL의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위한 협정 체결
 - 계약에 따라 MOL은 자회사인 ITI(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nc)의 지분 49%를 브룩필드에 이전
 - ITI는 로스엔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TraPac의 지주회사
 - 브룩필드 자산관리회사의 대변인 앤드류 윌리스는 "MOL은 터미널 운영 사업을 전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동맹에 가입했다"고 발표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의 부가가치를 더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새로운 항만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합작회사 설립 계획
 - 브룩필드가 참여하고 있는 터미널은 게이트웨이 터미널이며, 북미와 남미에서 항만분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회 획득
 - 브룩필드 자산관리회사는 영국의 PD포트, 유럽의 유로포트와 세계에서 가장 큰 호주의 석탄 터미널인 DBCT(Dalrymple Bay Coal Terminal)를 보유

< MOL 항만 기항 전경 >



자료 : www.portstrategy.com

자료 : www.portstrategy.com, 2014.1.16.

김우선 전문연구원 (☎ 02-2105-2889, firstkim@kmi.re.kr)

□ Ningbo-Zhoushan항, 철도-수로 복합운송 확대 전략 성공으로 항만물동량 증가

- Ningbo-Zhoushan¹⁾항의 중국 배후단지 내 생산허브와 항만을 연결하는 복합운송망 개발 전략이 성과를 거둬 항만물동량 상승
 - Ningbo-Zhoushan항과 국가 배후단지를 연결하는 철도 확장사업의 성공으로 철도-수로 복합운송 서비스 강화
 - 이로 인해 최근 수년 간 철도-수로 복합운송 컨테이너 물량 급증
 - 향후 추가적 항만 개발 및 복합운송망 확대 시 컨테이너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 기대
- Ningbo-Zhoushan항 철도-수로 복합운송망은 중국 내륙 국가 배후단지에 위치한 주요 생산허브의 물량을 해상과 연결하는 역할 수행
 - Ningbo-Zhoushan항의 철도-수로 복합운송망은 중국 저장성(Zhejiang) 동부 및 장시(Jiangxi) 중부의 12개 도시와 연결
 - 2013년 Ningbo-Zhoushan항은 고속화물철도 서비스를 개시하여 취저우(Quzhou), 진화(Jinhua), 이우(Yiwu)의 도시 뿐만 아니라 보다 내륙에 위치한 상양(Xiangyang), 시안(Xian), 란저우(Lanzhou) 까지 철도 운송서비스 확대
 - 또한 지역화물 유치를 위해 장시 발생 풀컨테이너에 대한 하역요율 30% 감면
-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Ningbo-Zhoushan항 철도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 항만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Ningbo-Zhoushan항의 철도-수로 복합운송망 컨테이너 물량은 2009~2012년 기간 중 3,421%(연간 384%) 증가하여 2012년에는 59,500TEU를 기록
 - 또한 2013년에는 철도-수로 컨테이너 물량이 전년대비 76.2%증가한 10만 TEU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이에 힘입어 Ningbo-Zhoushan항의 2013년 1월 컨테이너 물량은 1백 6십 9만 TEU으로 2012년 같은 기간 대비 6.9% 증가
 - BMI의 중기예측(2014~2018년)에 따르면 Ningbo-Zhoushan항 컨테이너 물량은 연간 8%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2천 4백만 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또한 항만 확장정책을 지속하고 철도-수로 서비스 확대 시 이러한 높은 성장전망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

자료 : www.businessmonitor.com, 2014.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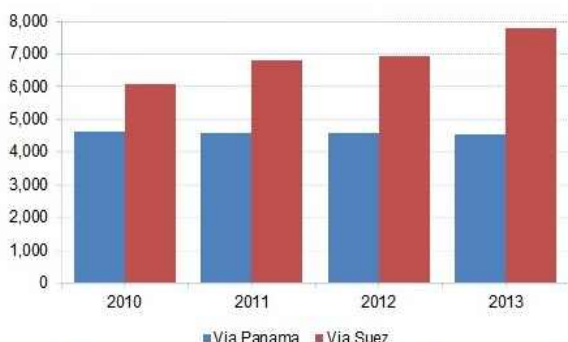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1) Ningbo-Zhoushan항: 2006년 1월, 기존 2개 항만이었던 Ningbo항과 Zhoushan항이 통합된 항만으로 현재 중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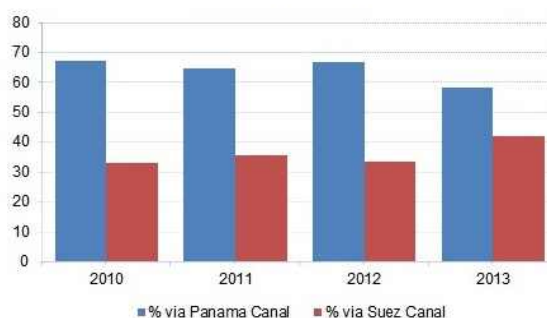
□ 이집트, 수에즈 운하 물류회랑 개발

- 이집트 정부는 수에즈운하 개발을 2014년에 착공하여 약 10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
 - 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항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무역의 다양성과 복합적인 물류사업 성장의 트렌드에 맞추어 그 역할 범위의 확대를 모색
 - 수에즈운하를 통해 세계해상물동량의 약 8%를 수송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시장을 잇는 최단로의 장점을 보유
- 수에즈운하위원회(Suez Canal Authority)는 수에즈운하를 3단계로 나누어서 개발할 예정
 - 1단계는 물류단지와 조선소를, 2단계로는 레저시설, 3단계로는 곡물산업 및 산업단지를 개발할 예정임
 - 전체 개발 규모는 약 76,129m² 수준
- 선박의 통과기능만 가지고 있던 운하에서 향후 다각적인 물류사업을 통해 운영수익을 높일 계획
 -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법률 가이드라인과 참여부분 및 사용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발표할 예정
- 현재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선의 사이즈는 파나마 운하 통과 컨테이너선보다 대형화되었으며 운하통과 선박 처리능력도 점진적으로 증가
 - 선박의 대형화 추세 및 Maersk의 TP7선박의 운항 스케줄이 파나마에서 수에즈로 바뀌면서 통과하는 선박사이즈 증대
 -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처리능력은 여전히 파나마 운하가 높으나 2013년 기준 파나마운하의 비중이 58%인데 반해 수에즈 운하의 비중은 2013년에 42%까지 증가

< 운하 통과 컨테이너 선박 사이즈(파나마vs수에즈) >



< 운하통과 선박 처리능력(파나마VS.수에즈) >



자료 : Maritime Connector

자료 : www.hellenicshippingnews.com, 2014.1.20.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 Maersk, 핵심사업 집중 위해 2007년 이후 26개 사업부 매각

- Maersk는 자사가 보유한 덴마크 유통업체 Dansk Supermarked의 30억 달러 규모 지분을 매각
 - Maersk는 지난 1월 7일 약 50년이라는 장기간의 파트너십을 유지한 덴마크 최대의 유통매장 Dansk Supermarked 지분 48.7%를 매각하기로 발표
 - Maersk는 본 거래가 약 170억 크로네(미화 30억 달러) 규모이며 거래가 완료되면 140억 크로네에 달하는 장부상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Maersk는 지난 7년간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핵심 사업군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
 - Maersk가 덴마크의 대형 유통업체를 매각하는 이유는 해운, 항만운영, 시추 및 석유 사업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일환
 - 글로벌 해운시황 분석기관 알파라이너(Alphaliner)에 따르면 Maersk는 7년간 총 26개의 회사(사업부문) 매각을 진행했으며, 자사 핵심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

< Maersk그룹의 자본회수 현황 2007-2014 >

자본회수 부문	업종	날짜	매수자
VLCC Fleet	초대형 원유수송선 운영	2014년 1월	Euronav
Dansk Supermarked Group(67.7%)	유통	2014년 1월	F. Salling
DFDS	페리 운영	2013년 9월	시장판매
Bridge Terminal Transport	미국내 운송	2013년 9월	Platinum Equity
ERS Railways	철도 및 복합수송	2013년 1월	freightliner
VLCG Fleet	초대형 가스운반선 운영	2013년 5월	BW Group
Maersk Curlew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 운영	2013년 4월	Shell
Dania Trucking	덴마크 컨테이너 육상운송	2012년 12월	Dania Co
Handygas Fleet	가스/운송용 헥다사이즈선박운영	2012년 11월	Navigator Gas
Maersk Peregrino	초대형 원유수송	2012년 6월	Statoil/sinochem
Maersk Equipment Service Co.	미국 샷시 대여	2012년 3월	littlejohn & Co.
Maersk LNG	LNG 수송	2012년 2월	Teekay/Marubeni
Odense Steel Shipyard	조선	2012년 2월	Closed down
Marsk NGUJIMA-YIN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	2011년 12월	Woodside Petroleum
Netto	식품 유통	2011년 4월	Asda
Baltija	리투아니아 조선	2010년 7월	BLRT Grupp
YICT(13.7%)	엔텐 터미널 운영	2010년 4월	Cosco Pacific
Norfolk	RoRo선 운영	2009년 12월	DFDS
Loksa laevateehase	에스토니아 조선	2009년 11월	Loksa Inveest
Rosti	플라스틱 사출 몰드	2009년 11월	Nordstjeman
MarinAir	네덜란드 항공	2008년 12월	KLM
Roadways Container Logistics	영국 육상수송	2008년 11월	Aegeus Transport
Maersk Car Carriers	해운	2008년 1월	Höegh Autoliners
Codan Gummi	첨단 고무	2007년 9월	Maflow Group
Volkswerft Stralsund	독일 조선	2007년 7월	Hegemann
Balti	철강 부품	2007년 5월	Cargotec

자료 : www.shippingwatch.com

자료 : www.freshplaza.com, www.ft.com, 2014.1.16.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물류시장동향

□ Maersk·APL·OOCL 3사, 극동-인도반도항로 공동운항

- 3사는 2014년 2월부터 아시아 3개 항로에서 선박 공유 예정
 - Maersk·APL·OOCL 3사는 기존에 운영중인 3개 항로에서 상호 협력하고 CMA CGM, Emirates Shipping Line, Hamburg Süd 등 기타 지역 선사들과도 선박을 공유, 18척·총 17,500TEU에 달하는 선박을 항로에 배치할 예정
 - 참여 선사들은 같은 항로를 공동 운항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서비스를 배제하고 아시아 주요 허브 항만간 수송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본 서비스에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의 주요 항만이 기항지에 포함될 예정이며 현재 각 선사별 주1회 운항횟수가 주3회까지 증가될 예정
 - 이와 같은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아시아 항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유럽계 선사와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역내 선사들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

자료 : www.marinelink.com, www.seatrade-global.com, 2014.1.14.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타우랑가 항만, 복합운송 물류 허브 개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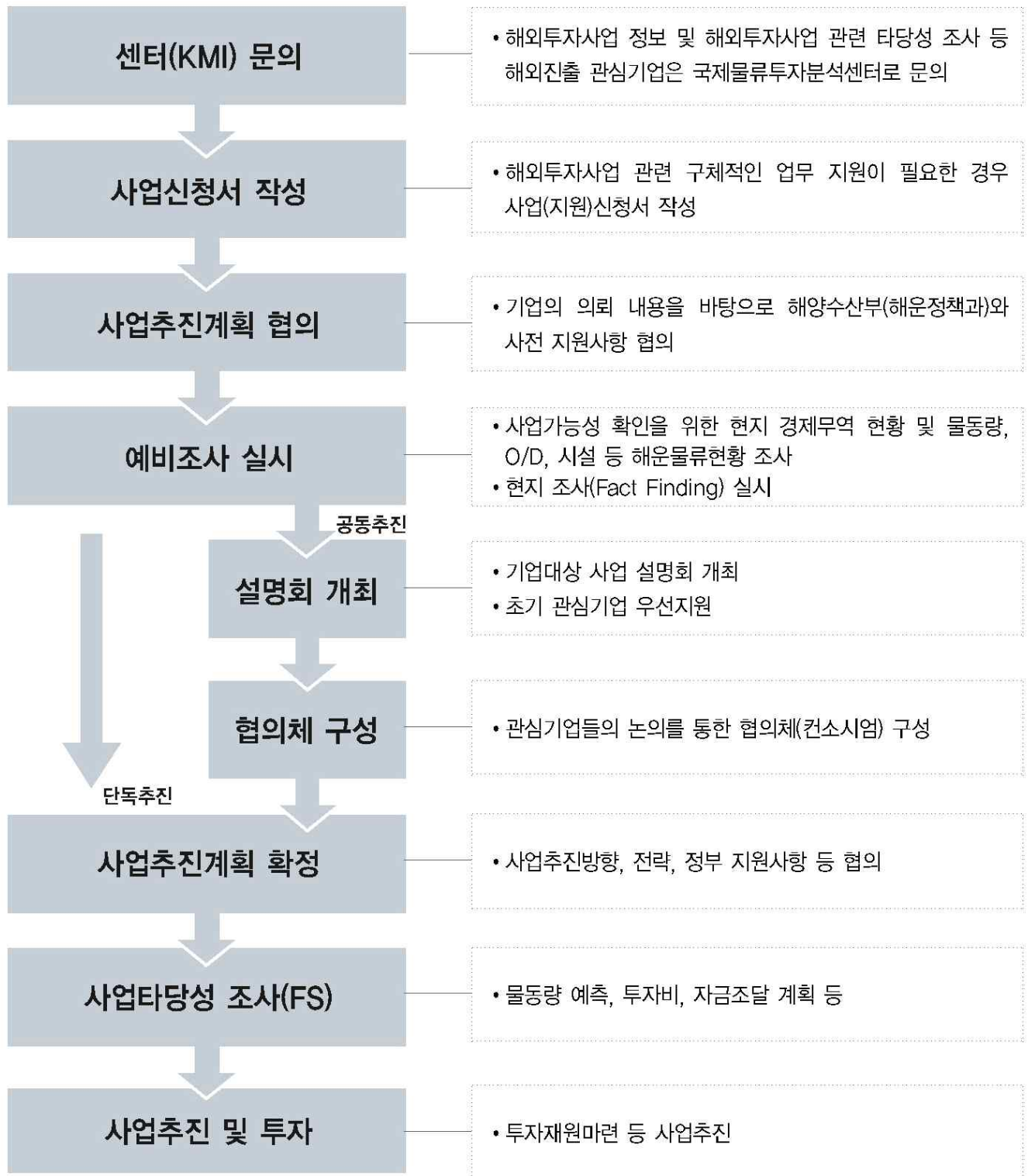
- 타우랑가 항만공사는 Rolleston의 Izone 산업단지 내 복합운송 허브 개발 결정
 - 타우랑가 항만공사는 Selwyn District Council로부터 Izone 산업단지²⁾ 내 15ha 규모의 토지 구매계약 체결 발표
 - Izone 산업단지는 Christchurch로부터 남쪽 약 12km 가량 떨어진 Rolleston 지역에 약 180ha 규모로 건설된 산업단지로,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 연결망을 구비
 - 타우랑가 항만공사는 복합운송 물류 허브를 Izone 산업단지 내에 개발할 예정
- 타우랑가 항만공사는 Rolleston에 복합운송 물류 허브를 건설함으로써, Timaru와 Christchurch 지역의 수출입 물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1.16.

민경창 연구원 (☎ 02-2105-2741, kcm0525@kmi.re.kr)

2) Izone 산업단지는 제조기업, 창고 및 물류기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됨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